

21세기 한국 드라마의 흐름과 세계적 교류 양상

윤석진(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21세기 한국 드라마의 동향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드라마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외형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지상파 위주의 방송 환경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로 재편되었다.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떨어진 반면, 케이블 방송 드라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인터넷 기반의 웹툰(web-toon)을 각색한 드라마 증가와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매체적 특성을 결합시킨 웹드라마(web-drama)가 시도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무한생존경쟁 구도가 고착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을 투영시킨 드라마들이 주목을 받았다. 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파국의 실상 폭로, 쌍둥이나 도플 갱어 또는 자아분열과 같은 다중인격 현상 포착, 초자연적이거나 비과학적인 판타지의 범람, 현실 정치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극적 해결 시도, 여성의 연대와 유대감 모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장르적 다양성이 담보되면서 표현 수위의 강도 또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교류에도 뚜렷한 변화의 기미가 포착되었다. 아시아에서의 '한류(Hallyu. Korean Wave, 韓流) 드라마 열풍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들이 주목을 받았다.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경쟁력이 로맨스 장르임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서의 외국 드라마 수용이 기존의 일본 위주에서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확장된 점이다. 그동안 일방적 경향이 강했던 한국 드라마와 외국 드라마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방송 플랫폼의 다양화와 인터넷 기반 활성화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위주의 방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 중심의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2011년 12월에 동시 개국한 4개 종합편성채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상파 위주의 방송 플랫폼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의 평균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케이블이나 종합편성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던 위상마저 흔들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중장년층을 고정 시청자로 확보한 일련의 주말연속극을 제외하고, 평일 미니시리즈 드라마 가운데 <별에서 온 그대>(SBS, 2014), <태양의 후예>(KBS2, 2016) 정도를 제외하고 20%를 넘긴 드라마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평균 3%가 넘어도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던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들은 10%를 넘나드는 시청률을 올릴 정도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 나의 귀신님>(tvN, 2015) <두 번째 스무 살>(tvN, 2015)은 8% 전후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응답하라 1988>(tvN, 2015)은 최고 시청률 20%에 육박하는 기록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예능과 드라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각각의 특성을 결합시킨 드라마가 제작되었다.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프로듀사>(KBS2, 2015)는 방송사 예능국 PD들과 아이돌 스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예능적인 이야기를 드라마로 구성하여 호평을 받았다. 반면에 <별난 며느리>(KBS2, 2015)는 아이돌 스타 출신이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극적 상황을 설정하고 예능 프로그램처럼 연출하였지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매체(media)와 플랫폼(platform)이 다양해지면서 리메이크 개념에 변화가 일어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웹툰을 각색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다시 만들기’의 개념이 ‘매체 간의 전이’로 확장된 것이다. 리메이크의 결과는 매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 드라마는 대부분 호평을 받았다. 만화적 상상력과 문학적 감성이 시청각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해 구현되면서 시각이나 청각이 결합된 원작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드라마적인 재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오렌지 마말레이드>(KBS2, 2015), <밤을 걷는 선비>(MBC, 2015), <미생>(tvN, 2014), <냄새를 보는 소녀>(SBS, 2015), <송곳>(JTBC, 2015)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드라마가 텔레비전보다 모바일 기기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웹드라마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기존의 단막드라마를 대체하고 있는 웹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말 이전까지의 내용을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나누어 편집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송출한 뒤, 결말을 포함한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방식은 천편일률적이라는 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KBS에서 2014년의 <간서치열전>에 이어 2015년에 제작 방영한 웹드라마는 모두 4편이다. 약육강식의 사회를 학교에 빗대어 표현한 <아부쟁이>, 2020년을 배경으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남북 공동 미스코리아가 개최된다는 설정이 흥미로운 <미싱코리아>, 천년고도 경주를 배경으로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9초>, 남장여자인 연애심리 프로파일러 설록K가 재벌 2세의 의뢰를 맡게 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다룬 <연애탐정 설록K> 등은 웹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들로 주목받았다.

MBC에서 제작 방영한 웹드라마 <풍당풍당 러브>(2015)는 수학포기자인 고3 여학생이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 날 조선으로 시간 이동을 하여 '한글'을 창제의 주인공 '이도(세종대왕)'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판타지 드라마로 호평을 받았다. 네이버 포탈에서 10회 분량으로 방영된 것을 2부작의 단막극으로 재편성하여 MBC에서 다시 방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3.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문제적 현실 포착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무한생존경쟁 구도가 고착되면서 나타난 문제적 현실을 포착한 드라마들이 증가하였다. 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파국의 실상 폭로, 쌍둥이나 도플갱어 또는 자아분열과 같은 다중인격 현상 포착,

초자연적이거나 비과학적인 판타지의 범람, 현실 정치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극적 해결 시도, 여성의 연대와 유대감 모색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파국의 실상 폭로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에서 나타났다. <냄새를 보는 소녀>(SBS, 2015),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SBS, 2015), <너를 기억해>(KBS2, 2015)는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병리 현상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앵그리 맘>(MBC, 2015), <학교 2015 후아유>(KBS2, 2015)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헤쳤다. 그런가 하면 <미세스 캅>(SBS, 2015), <옹팔이>(SBS, 2015)는 자본의 힘으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문제적 현실을 담아냈고, <풍문으로 들었소>(SBS, 2015), <상류사회>(SBS, 2015), <송곳>(JTBC, 2015)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의 문제를 풍자와 직설화법으로 고발하였다.

출생의 비밀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던 쌍둥이 설정이 미스터리와 결합되는가 하면, 쌍둥이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도플 갱어나 자아분열 등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학교 2015 후아유>(KBS2, 2015)와 <애인 있어요>(SBS, 2016)는 학교 폭력과 경제적 비리에 연루된 쌍둥이 자매를 통해 미스터리를 풀어나간 경우라면, <가면>(SBS, 2015)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는 도플 갱어를 미스터리 장치로 활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괜찮아, 사랑이야>(SBS, 2015), <킬미 힐미>(MBC, 2015), <하이드 지킬, 나>(SBS, 2015)는 자아분열과 같은 다중인격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보여주었다.

현실의 추레함이 증폭되고 고착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가 문화적 충동과 일상 현실에 대한 전복으로서의 판타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판타지드라마가 범람했다. 드라마에서 판타지 기법은 주로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는 시적 정의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기법으로서의 판타지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이동’으로 <옥탑방 왕세자>(SBS, 2012), <인현왕후의 남자>(tvN, 2012), <닥터진>(MBC, 2012), <신의>(SBS, 2012), <나인 : 아홉 번의 시간 여행>(tvN, 2013), <미래의 선택>(KBS2, 2013), <신의 선물, 14일>(SBS, 2014)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둘째,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귀신이나 영혼을 보는가 하면 순간 공간이동을 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SBS, 2013), <주군의 태양>(SBS, 2013), <별에서 온 그대>(SBS, 2014) 같은 작품을 꼽을 수 있다. 셋째, 영혼 또는 육체가 바뀌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시크릿 가든>(SBS, 2011)이나 <빠담빠담 -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JTBC, 2012)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정치와 결탁된 여러 유형의 권력을 직설 화법으로 다룬 드라마들도 주목을 받았다. <펀치>(SBS, 2015), <힐러>(KBS2, 2015)와 <복면검사>(KBS2, 2015)와 <어셈블리>(KBS2, 2015)가 대표적이다.

<펀치>는 국가가 검찰에 부여한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도덕과 정의를 저버린 채 권력의 총견이 되었던 검사가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가 일조했던 부정과 부패의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검찰 총장과 맞서 훼손된 정의와 진실을 복원시켰다. <힐러>는 정치나 사회 정의와 무관하게 살아가던 자식세대가 부모세대의 추악한 과거를 직시하면서 언론과 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문제적 현실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복면검사>는 정치권력과 자본에 의해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한 복면검사의 활약상에 집중하였다. <어셈블리>는 해고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현실 정치의 폐해에 맞서 희망의 정치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성 인물 간의 연대와 유대감 강화이다. 여성 인물 간의 연대와 유대감 강화는 드라마의 주요 시청자가 여성이어서라기보다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이 요구되는 황폐한 사회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마마>(MBC, 2014)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고 ‘엄마’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고 싶어 마지막 최선을 다 하는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 속에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을 투사시킨 드라마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죽고 싶은 여자와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온갖 수모를 감내했던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지금까지 그 어떤 드라마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여성의 연대와 유대를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버팀목인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개별

존재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주목받았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KBS2, <두 번째 스무 살>tvN, <부탁해요 엄마>KBS2, <엄마>MBC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할머니-어머니-딸’로 이어지는 모계 혈통 3대가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다루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문제의식이 흥미로웠다.

4. 한국 드라마와 외국 드라마의 교류 현황

한국 드라마가 외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리메이크하는 경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외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성공 확률은 이국적 정서를 어떻게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한국적 정서에 맞게 변환이 이루어지면 원작과는 다른 재미를 느끼면서 시청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작의 인기에 편승하여 어설피게 변환할 경우 오히려 원작과 비교당하는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다. 일본 NHK TV 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한국적 정서에 맞게 각색하여 ‘미스 김’ 신드롬까지 일으킨 <직장의 신>(KBS2, 2013)이 성공적이었던 반면, 일본 후지TV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가 원작인 <내일도 칸타빌레>(KBS2, 2014)는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는 리메이크로 시청자의 외면을 받았다.

한류 드라마의 일방적 수출이 문제인 현실에서 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리메이크 드라마의 원작이 대부분 일본 드라마라는 점이 문제적이다. 2015년 7월 12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리메이크된 드라마는 34편에 이른다. 2009년까지는 10편에 지나지 않았는데, 2010년 이후 24편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34편 가운데 29편이 일본 드라마가 원작인 리메이크 드라마라는 것이다. “아마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의 대만 드라마 <연애의 조건 - 아가가능회애니(我可能不會愛你)>를 원작으로 인생의 절반을 친구 사이로 지내던 청춘남녀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그린 <너를 사랑한 시간>(SBS, 2015), 탄탄한 스토리와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영국 ‘가디언지’에서 “2014년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세계 드라마 6편” 가운데 한 편으로 선정된 이스라엘 드라마 <마이스(MICE)>를 원작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남한과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환경을 그린 <스파이>(KBS2, 2015),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타임슬립 역사드라마 <보보경심>을 원작으로 고려 건국 초기의 황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낸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SBS, 2016) 정도가 예외적이다.

일본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SBS, 2013)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실을 배경으로 맑고 순수한 사랑을 그린 일본 TBS 드라마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가 원작이고, <수상한 가정부>(SBS, 2013)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붕괴 위기에 처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역설한 일본 NTV 드라마 <가정부 미타>가 원작이다. <직장의 신>(KBS2, 2013)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3개월 계약직을 고수하는 주인공을 통해 비정규직 애환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한 일본 니혼TV 드라마

<파견의 품격>가 원작이고, <여왕의 교실>(MBC, 2013)은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초등학교 여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을 통해 경쟁사회의 폐해를 통렬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비판한 일본 니혼TV 드라마 <여왕의 교실>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일본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함으로써 한국의 문제적 현실을 성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원작의 이국적 정서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환하지 못할 경우,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리메이크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도 분명하다.

리메이크 드라마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다. 리메이크 드라마의 원작은 대부분 유명세를 치루면서 팬덤을 형성한 작품들이다. 리메이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원작을 사랑하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캐스팅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주인공의 시각적 이미지가 이미 원작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캐스팅 된 배우와의 싱크로율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내일도 칸타빌레>의 경우처럼 이미 캐스팅 된 배우가 출연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리메이크 자체를 반대하는 원작 팬들의 항의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다. 일본 TBS 드라마 <심야식당>을 리메이크한 <심야식당>(SBS, 2015) 이 그렇다. <심야식당>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음식으로 치유하면서 인생의 맛을 보여주는 원작의 매력을 살리지 못했다는 혹평에 시달렸다.

2016년에는 미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 드라마의 한국 내 방영이 단순 배급에서 원작을 판매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2016년 5월 시즌7로 종영한 미국 CBS 법정드라마 <굿와이프>가 tvN에서 같은 제목으로 2016년에 리메이크 되었다. 2009년 처음 방영된 원작은 스캔들에

취말려 구속된 검사의 아내가 13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드라마는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섬세한 심리 묘사, 다채로운 사건이 주는 재미 등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에서도 한동안 영화에 주력하였던 배우들(전도연, 유지태 등)이 주연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미국 HBO에서 2004~2011년 방영된 시트콤 <안투라지>는 할리우드를 한국 연예계로 각색하여 tvN에서 11월에 방영될 예정이고, 미국 CBS 장수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의 리메이크 소식도 있다.

미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최근 급증한 배경은 미국 제작사들이 해외 단순 배급 위주에서 포맷 판매 형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SBS, 2014)나 <태양의 후예>(KBS2, 2016)와 같은 흥행 대작이 등장하고,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세계 각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 시장이 확장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수사물인 <시그널>(tvN, 2016) 성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애 드라마 일색이던 한국 드라마의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방송사나 제작사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도 미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에서 리메이크된 한국 드라마 현황을 국가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처음 리메이크 된 한국 드라마는 한류 드라마 바람을 일으킨 <겨울연가>(KBS2, 2002)의 주인공 배용준이 출연한 <호텔리어>(MBC, 2001)로 2007년에 같은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어 방영되었다. <마왕>(KBS2, 2007)은 2008년에 리메이크되었는데, 20부작이 11부작으로 줄어 전개가 빠른 대신 원작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류스타 장근석이

주인공을 맡은 <미남이시네요>(SBS, 2009)는 2011년에 리메이크되어 한국에서와 달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대만에서도 2013년에 <원래시미남>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었다. <쩨의 전쟁>(SBS, 2007)은 2015년에 초난강을 주인공으로 리메이크 했으나, 원작의 주인공 박신양을 뛰어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생>(tvN, 2014)은 <HOPE - 기대제로의 신입사원>이란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어 2016년 방영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아내의 유혹>(SBS, 2009)이 <회가적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리메이크 되어 지난 2000년 이후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가을동화>(KBS2, 2000)는 <일불소심애상니>으로 리메이크되어 2011년 초 전국시청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였다. <찬란한 유산>(SBS, 2009)은 <아적찬란인생>으로 2011년에 리메이크 되었고, <인현왕후의 남자>(tvN, 2012)는 <상애천사천년>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방영되어 성공하면서 시즌2가 2016년에 한중합작으로 제작되었다. 2007년 화제작 <커피프린스 1호점>(MBC), 2015년 화제작 <그녀는 예뻐다>(MBC). 그리고 2016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태양의 후예>(KBS2)도 리메이크될 예정이다.

태국에서는 <커피프린스 1호점>(MBC, 2007)와 <폴하우스>(KBS2, 2011) 등이 리메이크 되었고, 터키에서는 <가을동화>(KBS2, 2000)와 <그녀는 예뻐다>(MBC, 2015)가 리메이크되었는데, 방영 당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가을동화>의 남녀주인공의 연령대가 50대라는 점이 특이하다. 그런가 하면 <후아유 - 학교2015>(KBS2, 2015)는 영국 최대 민영방송사에서 판권을 구입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리메이크 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별에서 온 그대>(SBS, 2014), <굿닥터>(KBS2, 2013), <나인 – 아홉 번의 시간 여행>(tvN, 2013) 등이 리메이크되었다.